

반복적 악취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조업정지

익산, 불법행위 지속 땀 폐업조치까지 불사

익산시가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익산 제2산업단지 소재 A업체의 경우 2018년부터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여 시

민의 환경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었다.

또한 왕궁면에 소재한 B업체도 수차례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최근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

릴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업조치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이번 조업정지로 익산시에서 조업하는 악취배출 사업장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제2산업단지 화학공장의 경우 악취포집 결과가 초과돼 개선명령을 내려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이 미흡하면 조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재 해당 사업장은 폐수처리장 상판 덮개 공사를 진행 중이며, 8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추진

익산,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 선정... 연내 마무리

익산시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15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익산시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하반기 교육을 이달 26일에 개강해 약 4개월간 운영한다.

개강강좌는 4개 과정 총 36과목이며 ▲자격증취득과정(11개), I T Q(역셀), 실버인지능력전문가, 바리스타 2급(주·야간반), 풋차스몰리에 등 ▲취미·교양과정(10개) 화목한 남자요리, 약선요리, 천연발효식초, 홈패션과리폼(주·야간반) 등 ▲전통·문화 과정(9개) 서예, 왕초보 기타교실, 우쿨렐레, 한국무용 등 ▲여성복지·건강과정(6개) 다이어트댄스, 국산도, 요가, 실버댄스(초급, 중급), 볼룸댄스 등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 2억 3천만 원(국·시비 포함)을 투입해 출입구 자동출입문과 가스차단기, 자동식소수도계량기를 교체해 입주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SOC사업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아파트 주변 화단을 정비했고 보안등 위치 조정 및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왔다.

또한 CCTV 8대를 설치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영등동 상하수도사업단 인근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잔여 세대 입주자를 상시모집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근로여성과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며 보증금 4만원, 월 사용료 2만원에 생활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바리스타 2급 야간반 강좌를 신설했고 가구DIY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디지털 떡, 화목한 남자요리, 천연발효식초, 왕초보 기타교실 등 10개 강좌는 남성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여성회관 ☎859-49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 수돗물 공급 침전지 청소

익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침전지 청소를 실시한다. 침전지 내부의 물을 완전히 비우고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고압세척기 등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 품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신흥·금강) 침전지 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신흥·금강 정수장은 하루 평균 7만여 톤의 생활용수와 2만여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청소는 생활·공업용수 침전지 총 8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정수장 침전지 청소 실시로 정수시설물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

저렴한 공급 의지 밝혀

익산시가 최근 착공한 "평화지구 LH 아파트"에 대해 3.3㎡ 당 700만원대의 저렴한 공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8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인 평화지구 LH 아파트 건설공사가 착공하였으며, 분양가는 청주 모충동 등 유사사례를 감안하여 3.3㎡ 당 700만원 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예상하는 700만원대 분양가는 서민주거 안정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우리시의 강한 의지로 보아달라"며 "이를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농지이용시설 실태조사 추진

9월 20일까지 목적사업 성실이용 유무 등

군산시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5주간 농지이용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농지이용시설 199개소 417동에 대해 목적사업 성실이용 유무, 휴경, 타용도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시설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없이 건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러한 농지이용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직원의 현장조사, 판매현황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

사용 및 불법사항 확인 시 농지 처분명령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이용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버섯생산이나 곤충사육, 가족사육 등에 이용한다면 적극 권장할 사항이나 법을 악용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면하기 위해 농지이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철저히 조사, 불법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는 이번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실시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취업프로그램 청년들 사업설명회 대성황

개소 앞두고 센터 방향 공유

군산시 청년들 사업설명회가 200여명의 청년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청년들은 시에서 복합센터로 조성하고 있는 청년센터와 창업센터의 통합명칭으로, 지난 21일 청년창업센터 내 동아트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는 올 하반기 개소를 앞두고 센터의 방향을 공유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소개된 청년프로그램은 수준별 집중취업 멘토링인 '잡터링 클래스', 청년동아리지원사업인 '청년스타그램', 함께 식사하며 청년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공유식탁' 등 7개가 소개됐다.

창업분야에서는 창업교육부터 사업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창업캠퍼스', 3D 프린터 및 모델링 맞춤형 교육 '메이커스페이스', 체계화된 단계별 창업코칭인 '원스톱 창업 컨설팅' 등 9개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또한 2부행사로 현장에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1:1 상담과 사전접수를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려는 청



군산시 청년들 사업설명회가 200여명의 청년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년들로 현장은 북적였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청년들은 청년문화와 활동, 창업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정책은 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군산의 모든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가 있고, 일하면서 배울 기회가 있을 때까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청년들에서는 군산

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활동, 취업 교육, 역량 개발,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시 최초로 신설되는 창업플랫폼으로서 예비창업가를 육성하고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 멘토링,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올해 첫 조생종 벼 베기 수확 기쁨 느껴

군산시는 지난 21일 서수면 축동리 일원 2,400평 농지에서 올해 첫 조생종 벼를 수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수확한 벼는 수량성과 품질이 우수한 조생종 조평벼로, 서수면 축동리 전업농 이준숙씨가 지난 5월 4일 첫 모내기를 실시한 후 110일만의 수확이다.

이씨는 총 13필지 중 조평벼 7필지, 운광벼 6필지를 경작해 8월말까지 수확할 예정이다.

올해 첫 벼 수확을 시작한 이씨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모든 농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날씨가 좋아 작년에 비해 3%의 증수가 기대되어 기쁘다."고 말

했다.

벼 베기 현장을 찾은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지속한 농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여러방면으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